‘이런 방법이!’ 토마토, 집에서 길러 먹기

물만 줘도 쑥쑥 잘 자라는 토마토. 집에서 토마토를 길러 먹기 위해서는 우선 토마토 모종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토마토 모종을 얻을 수 있다. 정말이지 쉬워도 너무 쉬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올해는 정원에 주렁주렁 달린 싱싱한 토마토로 기르는 재미와 함께 건강도 챙겨보자. 화분을 이용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 준비물

토마토 하나 (너무 오래 돼 물컹물컹한 토마토도 OK!)
화분과 흙

■ 방법

1. 토마토를 가로로 4 등분 한다.

2. 화분에 흙을 채우고, 피자 토핑처럼 토마토 조각을 올린다.

3. 토마토 조각 위에 흙을 살짝 덮어준다. 토마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덮으면 충분하다.

4. 햇볕이 내리쬐는 장소에 1–2주 정도 놓아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얼마 안 가서 토마토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5. 가장 크게 자란 싹 4개를 조심스럽게 파서 새 화분으로 옮긴다. 몇 주 후, 화분 하나당 토마토 싹이 한 쌍씩 자라나도록 나머지 두 싹은 제거한다 (잘 자란 새싹을 정원 마당으로 옮겨 심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토마토 하나로 여러 개의 토마토 모종을 만들 수 있다.

이후 물만 주어도 쑥쑥 잘 자라나 싱싱한 토마토를 선사해 줄 것이다.

두루마리 휴지심 재활용 팁

어릴 적 장난감 삼아 한 번쯤 가지고 놀았을 법한 두루마리 휴지심. 휴지가 떨어지면 쓰레기에 불과했던 이 휴지심도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새 모이 급여기

휴지심 겉에 땅콩잼(피넛버터)을 듬뿍 바른 후 모이를 묻혀 정원이나 발코니에 꽂아두면 새들이 찾아온다.

2. 고데기

크고 풍성한 헤어 컬을 원한다면 매우 유용한 팁이다. 휴지심에 머리카락을 말고 실핀으로 고정한 뒤 드라이기 바람을 쐬어주면 머릿결 손상 없이 탱글탱글 예쁜 컬이 나온다.

3. 미니카 수납

아이들에게 미니카를 하나씩 사주다 보면 어느새 상자가 가득해진다. 이럴 땐 휴지심을 이용해 장난감 차 수납함을 만들 수 있다. 모양도 예쁘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차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한바탕 놀고 나서 정리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다.

4. 전선 정리기

케이블을 잘 감아서 휴지심 속에 쏙 넣어 고정하면 보기에도 좋고 부피도 줄일 수 있다. 휴지심 위에 전선의 정체를 써 두면 필요할 때 찾아 쓰기도 편하다.

5. 포장지 보관

포장지도 휴지심에 넣어 보관하면 좋다. 포장지가 풀어져 찢어질 일도 없고, 모두 동일한 두께로 착착 세워 두거나 눕혀 두기에도 좋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X-Ray Exam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350
잇몸치료 $600 → $3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Hacienda Heights, CA 91745